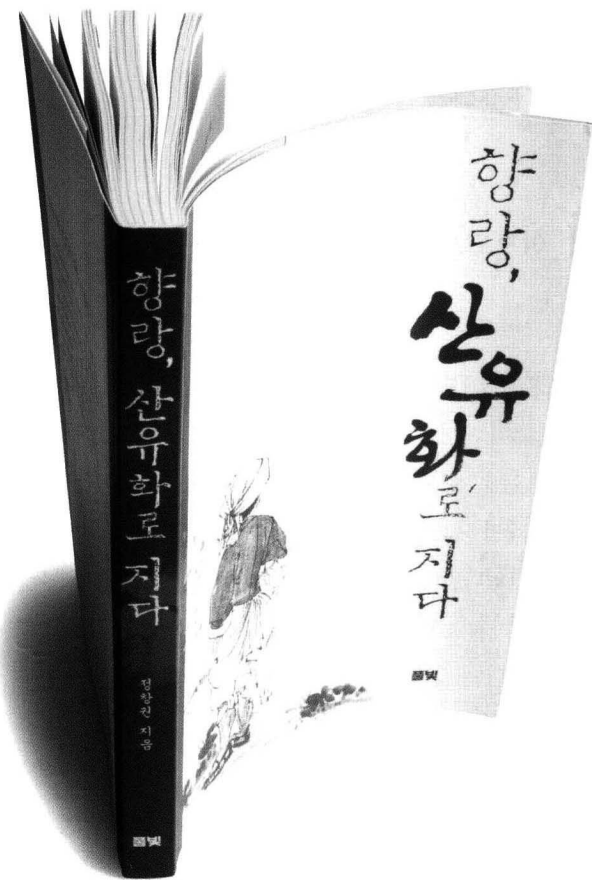


《향랑, 산유화로 지다》 선정기

무덤에서 향랑을 깨운

역사연구의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



7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오른 후보는 《대중 독재: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향랑, 산유화로 지다》 《헌법의 풍경》 《문학적 지성》 《나의 이복형제들》 《이 그림, 꾀는 건가요?》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 《그림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아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한국잡지백년》(전3권) 등 10종이었다.

이 중 최종 후보에 오른 도서는 《아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향랑, 산유화로 지다》 《헌법의 풍경》 등이었다.

'외로운 노인과 고단한 가족의 희망 찾기'라는 부제를 단 《아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은 신문사에서 여성, 가족, 복지 문

제 등을 취재하며 노인문제 관심을 가져온 저자가 일본 니가타 현 아마토마치에서 1년간 머물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옮긴 책이다. 저자는 어쩌면 대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풀 대안의 하나로써 아마토마치에서 시작된 재택개호 시스템에 주목한다. 취재를 통해 전달되는 현장감이 특징이다.

《헌법의 풍경》은 '우울한' 헌법의 풍경을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다.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검사, 변호사들의 세계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묵비권 행사, 평등에 대한 권리 등이 어떻게 무시되는지 흥미롭게 설명한다.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시점에 헌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한다.

《향랑, 산유화로 지다》는 16세기 양반들의 생활사를 다룬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로 독자들에게 미시사의 신선한 충격을 전해줬던 저자가 향랑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17세기 서민층의 가족생활사를 들여다본 책이다. 우리에게 열녀라고 전해진 향랑이 사실은 열녀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한 여인이라는 점을 다각도로 그리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평범한 여인의 자결을 통해 당대 여성의 이혼과 재혼문제, 열녀 담론 등 당시 사회가 품고 있었던 총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향랑, 산유화로 지다》를 7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선정했다. 기자들은 전작에 이어 역사연구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저자의 실험정신을 높이 샀다. 특히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는 글쓰기가 독자를 과거로 이끄는 데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과거가 단지 지나간 사실의 재구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회갈등을 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자들의 평가를 골고루 받았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